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차량5부제가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광주서구청에서 한 차량이 청원경찰의 안내를 받고 진입하고 있다. /뉴스시스

## ‘차량 5부제 강화’ 앞둔 광주시민들 “공감은 하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격상과 함께 차량 5부제(部制)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광주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2부제로 대폭 강화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이다. 2부제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확대  
관공서 민원인까지 제한 ‘혼란’... “세부지침 전달 돼야”

교 등이다. 출퇴근 차량 뿐 아니라 공용차량도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도 5부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차량 5부제가 실시된다. 이 같은 조치를 앞두고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과 시민들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A경감은 “에너지 절약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직원들도 차량 5부제가 시행된 뒤 큰 혼란이 없었다. 다만 민원인까지 확대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교

통사고 조사의 경우, 당사자가 차량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상황별 대응 지침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B씨는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주거밀집지역에 살고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해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간을 끊고 사용하고 있다. 차량 5부제가 공영주차장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일주일에 한번은 주차할 곳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차량 5부

제 강화를 둘러싼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 계시글 작성자는 “5부제에 해당되는 날이면 차를 가지고 나와 20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걸어서 출근하고 있다. 홀짝제로 바뀌면 이틀에 한번 강제운동을 하게 되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계시글 작성자도 “차로 15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분이 걸린다”고 전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차량 5부제 강화와 관련한 세부 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공영주차장 월 정기간 문제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왼쪽부터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후보.

## 민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돌입

민형배-주철현-신정훈-강기정 단일화, 김영록 빅텐트 ‘3인3색’  
권리당원-여론조사 50대 50... 동부권 표심-단일화 효과 등 변수

첫 통합 광역자치단체 수장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이 단일화와 예비경선을 거쳐 3과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3일 본격선 투표에 돌입한다. 경선 주자는 당초 8명이었으나 예비경선과 TV 토론회 등을 거쳐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후보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본경선은 3~5일 사흘간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시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당원은 온라인 투표와 함께 직접 전화를 걸거나(인바운드) 받는(아웃바운드) ARS 투표에 참여하며, 일반 시민은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로 표심을 전하게 된다. (2면에 계속) /기동취재부

##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 후보지로 전라남도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 안구백 국방부 장관이 광주·전남·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그간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가 구성되며 이전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지만 무안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난 1일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우려 사항을 표명했다. 이에 국방부·광주시 등 관계 기관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위는 광주·전남·무안군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후 무안군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무안군을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뉴스시스

건축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 대상 : 아파트(중공청소/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커뮤니티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유리창 드론 청소**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발전소·설비 청소**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공장 외벽 청소**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물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태양광 패널 청소**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사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소수익실현 가능)

### 시공 전후 사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